

일반高 올해 공동과목 41개 화상수업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일반고 학생과 교사가 실시간 화상수업이 가능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플랫폼 '교실온닷(www.classon.kr)'을 구축하고 올해 서울·대구·인천 등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고 학생에게 다양한 과목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공동교육과정이란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은 학교 밀집지역과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이 확대돼 왔지만, 학교 간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농·산·어촌의 경우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온라인 교육과정 플랫폼 '교실온닷' 구축 1학기 6개 교육청·2학기 11개로 확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플랫폼 '교실온닷'은 교사와 학생이 시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화상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업정보 확인·수강신청 등이 가능한 교육포털(www.dasson.kr), 화면 및 파일 공유·그룹토론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화상수업 플랫폼, 학습 이력관리 등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 수업 관리 및 각종 통계관리 등을 위한 관리자 시스템으로 구성했다.

1학기 서울·대구·인천·충남·전남·경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수요, 교사 수급 등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별로 '교실온닷'에 3~18개 과목(총 41개 과목 내외)을 개설해 방과후나 주말에 운영

할 예정이다. 교실온닷은 2학기 부산·울산·세종·경기·강원 등 5개 교육청이 합류해 총 11개 교육청으로 확대 운영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올해 방과 후나 주말에 교실온닷을 시범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정규시간 내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공동교육과정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도 수업이 방과 후나 주말에 운영됨에 따라 학업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학생들의 과목선택권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단위학교에서 개설·운영되지 않은 과목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하고 이수 결과

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 도입과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범 운영 지원단을 구성해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공교육 영역에서 실시간 양방향 화상수업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첫 사례인 만큼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교실온닷 도입으로 학생들이 지역여건에 관계 없이 원하는 과목의 수업을 듣고 온라인 토론과 그룹활동 과제수행 등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스

네덜란드, 헤이그 도심서 대마초 흡연 금지

네덜란드 헤이그의 도심 지역에 있는 커피숍과 기차역, 쇼핑지역에서 대마초 흡연이 금지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향후 2주 동안 공공장소 13곳에서 대마초 흡연자가 적발될 경우 경고 조치와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헤이그의 커피숍가 노숙자보호소는 '대마초 흡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전단지 배포했고 호텔에는 영문 안내 전단지가 비치됐다.

지난 1976년 네덜란드 정부는 대마와 헤시시와 같은 마약을 지정된 장소에서 구입하고 흡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네덜란드의 마약정책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하면서 1990년대에 1400여명에 이르던 대마 흡연 허용 커피숍이 2000년대에 70여곳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수도 헤이그를 포함해 380개 지방자치구 103곳에서 운영되는 573개 커피숍에서 대마초를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흡연도 가능하다.

이번 헤이그 시내 중심가 금지령은 대마초의 강한 냄새와 흡연자들의 소음에 대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헤이그 시장 대변인 폴린 크리케는 "대마초 사용이 헤이그 지역의 주민과 관광객들의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헤이그의 금지령은 대마초 판매와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정부는 국경 지역에 있는 커피숍들이 관광객들에게 대마초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왔다.

시리아 공군기지 또 공격 받아...이스라엘 추정

17일(현지시간) 시리아 공군기지 두 곳이 이스라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습을 받아 시리아군이 미사일을 요격했다.

미들이스트아이 등에 따르면 이날 시리아 방공망이 흡스 사이라트 공군기지를 표적으로 날아온 미사일 6기를 요격했다. 다마스쿠스 북부 두마이트 공군기지를 향해서도 미사일 3기가 발사됐지만 모두 격추됐다.

미사일 공격을 가한 정확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로서는 해당 지역에 미군 활동이 없다"며 시리아 공군기지에 공습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격 배후는 이스라엘일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은 지난 9일 시리아 흡스의 T-4 군용 비행장을 공격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 이란의 군사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이전에도 수차례 시리아를 공습했다.

이날 공습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시리아 공습 사흘 만에 일어났다. 이들 3개국은 이달 초 시리아 두마이트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사태에 응징하겠다고 14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와 흡스 일대의 화학무기 관련 시설 3곳을 공습했다.

사이라트 공군기지는 1년 전 미국 공습을 받은 곳이다. 미국은 작년 4월 4일 시리아 칸세이룬에서 화학무기 의심 공격이 발생하자 사이라트 공군기지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59기를 발사했다.

폭풍우 강타 하와이서 관광객등 60여명 구조

하와이 카우아이 일대를 강타한 폭풍우가 17일(현지시간)에도 계속되면서 흡수지역에 고립된 관광객등 60여명이 적십자 구조대에 의해 대피소로 옮겨지는 등 각지의 구조활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

북부 하날레이 해변 마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적십자사 대피소에서 14일 밤부터 흡수로 고립되어 있던 40명은 학교 주변이 모두 물에 잠긴데다 심한 강풍으로 헬기가 착륙할 수 없어서 항공운송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고 하와이 적십자사의 코넬리 마타요시 대표이사는 말했다.

15일 밤 이 곳에는 21명이 추가로 개인 보트와 물놀이용 펌프 등을 타고 도착했으며, 이미 불과 음식이 떨어 나 있던 이 곳에는 15일 다시 공급이 재개되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하날레이의 교량은 흡수로 폐쇄되었다가 16일부터 구급 차량에 한해서만 통행이 재개돼 이 곳 대피소의 사람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다른 대피소로 무사히 이송되었다고 카우아이 카운티 대변인은 말했다.

나머지 관광객들의 이송은 고속도로 한 군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일시 지연되고 있다.

이직 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북부 해안의 집 두채는 완전히 쓸려 나갔으며 이 집들의 주민은 이미 대피하고 없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뉴스스



4.19혁명 그날의 함성 4.19혁명 기념일을 이틀 앞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계4대 민주혁명 대행진에서 뮤지컬극단 다중(DAZOOM)이 '4.19혁명 그날의 함성'을 주제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내달까지 산나물 불법채취자 집중단속

순천국유림관리소는 5월말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을 맞아 전문적인 약초 채취꾼과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나물과 약초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산나물이 많이 나고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와 무허가입산 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주인 없는 '무주공산'으로 여기고 차량을 동원하여 단체 또는 그룹별로 기획모집된 임산물 굴·채취자와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입산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올라, 최근 3년간 산나물 채취로 인한 추락 및 폭초 복음 등 사고 발생은 총 66건(71명)이 발생하였

다.

그 중 사망자도 2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안전을 위해서도 무분별한 채취를 금지하여야 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헌행법상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이 된다"면서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 검진
- 암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다면,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 [고객센터 1577-1000]